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5년 2월 9일
제2039호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사무실: 703 968 3010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팩스: 703 968 3013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 희망의 순례자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0-11)



〈고기잡이 기적〉, 야코포 바사노

연중 제5주일 (다해)

제 1 독 서 이사 6,1-2 7.3-8 |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화 답 송 시편 138(137) |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5,1-11 <또는 1코린 15,3-8.11>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복 음 루카 5,1-11 |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 1 예수님께서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 2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 3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 4 예수님께서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 5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6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 7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 8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 9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 10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 11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복음 묵상

오늘 두 개의 독서와 복음은 부르심과 파견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이가 사명을 받아 파견되기까지 과정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거룩함 앞에 선 인간은 죄 많은 제 모습을 깨치기 마련입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사야는 여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직접 뵈고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더러움을 깨닫습니다. 예언자의 소명에서 핵심 도구인 입이 더럽다는 것은 근본적인 장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단의 타는 숯으로 정화된 다음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전에 먼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6,8) 하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노련한 어부 시몬은 밤샘 고기잡이에서 허탕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여 그물이 터져 나갈 정도로 잡은 물고기 앞에서, 아니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죄인인 자기에게서 떠나 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마라.”(루카 5,10)라는 말씀으로 그를 정화하시어 새로운 임무로 부르시고, 시몬과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5,11) 예수님을 따릅니다.

교회를 박해하였기에 “칠삭둥이”(1코린 15,8)로 자처하는 바오로는 열두 사도와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은총으로 정화되어 “지금의 내가”(15,10)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부르심부터 파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의 합당함이 아니라 부당함을 정화하여 응답을 준비시켜 주는 은총에 자신을 내맡깁시다.

(국춘심방그라시아수녀)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33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부분)

2025년 **희년** 희망의 순례자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희망은 오히려 시련의 때에 우리를 강인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흔두 제자를 파견하시며(루카 10,1-9 참조) 병자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루카 10,9) 하고 선포하라고 이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픈 이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병을 주님을 만나 뵙는 기회로 여길 수 있게 도우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병들었을 때 우리는 육체적 심리적 영적 측면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 하느님의 친밀함과 연민을 경험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찾지 못할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 주십니다.

질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만남**, 곧 우리가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모두를 더 강인하게 해 주는 경험입니다. 질병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언제나 구원의 신비로운 약속을 수반합니다. 고통은 하느님의 위로를 우리가 가까이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듯이(루카 24,13-53 참조)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온갖 근심 걱정과 낙담을 주님과 나누며 우리를 비추고 우리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처럼 우리도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어 다시 한번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더 위대한 실재**’이신 그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희년의 표징들 (4) 전례

전례는 **교회의 공적 기도**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르면,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 나오는 원천이다”(전례 헌장 10항). 그리스도교 전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참으로 받아 모시는 성찬례 거행이 있다. 순례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신비를 드러내 주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저물었습니다”(루카 24,29).

성년의 특징적인 전례 예식은 성문을 여는 예식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예식의 시작은 다소 상징적으로 교황이 성문 앞에 벽돌로 막은 벽을 깨고 이후 석공이 벽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1950년부터 예식이 바뀌어, 성문을 가로막은 벽이 사전에 철거되고, 장엄 성가 전례 중에 교황이 외부에서 성문을 밀고 첫 순례자로서 성문을 통과한다. 이를 비롯하여 성년에 수반되는 다른 모든 전례 표현은 **희년 순례가 개개인의 친밀한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향한 하느님 백성 전체의 여정의 표징임을 강조한다.**



1 2차 헌금 안내

- 오늘 미사 중에는 교구 신문(Diocesan Newspaper)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알링턴 교구의 신문은 우리 교구, 미국 교구 소식 및 바티칸에 대한 가톨릭 뉴스와 정보를 10만여 가정에 전달하고 있으며 catholicerald.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주일학교 6학년 - 8학년 볼링 대회

- 일시: 2월 9일(일) 2시 미사 후
-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6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친교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복사단 회의

- 일시: 2월 9일(일) 오전 11시, 본당 성전

4 단체장 회의

- 일시: 2월 9일(일) 오전 11:30 (A-1,2)

5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2월 9일(일) 오전 11:30 (B-3,4)

6 봉성체

- 일시: 2월 14일(금)
- 신청: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 2월 봉성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주 늦추어 실시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3월 봉성체도 한 주 늦추어 하겠습니다.

7 유아세례

- 일시: 2월 15일(토) 오후 2시 (사무실로 신청)

8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2월 16일(일) 오전 11:30 (B-4)

9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2월 16일(일) 오전 11:30 (A-1,2,3)

10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2월 16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11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함께 기도합니다.

- 2월 11일(화)은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아프고 고통받는 분들, 영양원에 계신 분들, 집에서 치료받는 분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현존과 우리의 기도가 치유와 위로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12 사목회 회장단 워크숍

- 일시: 2월 21일(금) 오후 3시 - 22일(토) 오후 5시
- 본당 제22대 사목회 회장단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가 2025년을 더욱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행사 계획표를 점검하고, 본당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레지오 간부 교육

- 일시: 2월 23일(일) 오전 11:30 - 오후 2:00
- 장소: 친교실 (A-1,2,3,4)
- 참석 대상: 레지오 마리아 간부 전원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및 주요 전달 사항

- 3월 5일(수)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시기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미사 40분 전에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미사를 봉헌할 계획입니다. 십자가의 길 복사와 주송을 할 단체, 개인은 전례 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시기 동안 주일에는 오후 1시 20분에 주일학교 학생들의 봉사로 십자가의 길을 바치겠습니다.
- 십자가의 길 기도문은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 사순시기 동안 '신앙의 신비어'에 대한 응답은 매일 미사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양식으로 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성모님 말씀대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빵과 물로만 단식하기 - 최소한의 음식으로 자신의 절제된 삶으로 주님의 수난을 마음에 새기기 또한 그를 통해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지 않기
- 사순시기 동안 단식과 금육제를 기본 마음으로 즐기
- 사순시기 동안 1주일에도 2회 이상 십자가의 길과 평일 미사 참례하기
- 장례 미사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 사전에 십자가의 길과 연도를 먼저 바칠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4 재의 수요일 미사

- 일시: 3월 5일(수)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 미사 중에 재의 예식이 있습니다.
- 지난 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 가지를 3월 2일(일)까지 성당 입구에 마련된 성지 가지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5 2024년 주일학교 견진반 신청

- 대상: 성체 성사와 첫 영성체를 받은 학생들과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첫 영성체를 받지 못한 7학년 이상 학생들
- 일정: 3월 12일(수) 오후 7시
- 등록 기간: 3월 2일(일)까지 (미사 후 교무실)
- 문의: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 624-8196

교중미사 예불봉헌

02/09 이번 주	버크 3반
02/16 다음 주	버크 4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2월 2일(주일) 봉헌 축일

봉헌금	\$ 8,390.00
교무금	\$ 12,370.00
교무금(신용카드)	\$ 3,560.00
감사 헌금	\$ 30.00
2차 헌금	\$ 5,219.00
온라인 봉헌	\$ 4,660.00
합계	\$ 34,229.00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5:00 - 6:00
- 2025년 2월 14일(금) 저녁 8:00 - 9:00
- 2025년 2월 16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돌레특강: 내 인생의 총고해 3. "저를 성장하게 해준 경험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기경웅 신부 (미리내 천주성삼성직 수도회)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화, 금	· 수
	· 10:00 AM(교중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 6:00 AM	· 7:30 PM	· 11:00 AM